
신안문화원장 김강민

『유암총서(柳庵叢書)』는 조선후기 대학자 다산 정약용의 강진 유배시절 제자였던 이강희(李綱會)가 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에 머물면서 집필한 문집입니다. 이강희는 다산 정약용이 강진유배에서 풀려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자, 다산의 친형인 손암 정약전이 유배생활을 하다 생을 마감한 우이도에 들어와서 학문에 매진하였습니다. 우이도에서 자신의 스승인 정약용과 정약전의 학문사상을 계승하며 그 성과물을 자신의 문집에 남겼는데, 현재 우이도 진리에 거주하는 문채옥 옹의 집안에 이와 관련된 두 권의 문집(유암총서, 운곡잡저)이 소중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 『운곡잡저(1권)』의 내용은 지난 2004년新安문화원 향토사료지로 발간한 바 있으며, 지속작업으로 올 2005년에는 『유암총서』에 수록된 내용을 국역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유암총서』에는 우이도 사람 문순득의 표류담을 듣고 정약전 선생이 기록한 「표해시말(漂海始末)」을 비롯하여, 이강희 자신의 저술인 「운곡선설(雲谷船說)」, 「거설답객난(車說答客難)」, 「제거설(諧車說)」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실학사상에 입각한 저술로써 이용후생(李用厚生)의 학문적 정신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유암총서』의 내용 중 「표해시말」 부분은 이미 1994년新安문화원에서 『문순득의 표해록(최덕원 저)』이란 이름으로 소

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전체 문집의 일부만 알려지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암총서』에 실린 「표해시말(정약전 저)」과 「운곡선설(이강희 저)」은 모두 우이도 사람 문순득의 표류 경험담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두 개의 글이 합쳐져야 온전한 표해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 표해록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특히 선박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논문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 「운곡선설」이 처음으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들을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마을에서 이런 놀라운 학문적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약전과 이강희의 저술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이도 주민 문순득의 증언이라는 면에서 본 문집은 실학자와 지역주민의 교류가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유암총서』는 이강희라는 알려지지 않는 학자에 대한 재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 실학사상의 흐름을 연구하는 소중한 원천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원문을 번역하여 주신 김정섭, 김형만 선생님, 이 자료의 가치를 알기 쉽게 풀이해 주신 안대회 교수님(명지대 국문과)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속에서도 지역문화 연구들 위해 본 자료를 발굴하고, 사료집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준 최성환 사무국장과 직원들,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의 노고에 박수들 보냅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집이 널리 알려지고 읽혀져서 후학들의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 발 간 사	3
■ 제1부 자료소개	
『유암총서』의 내용과 '문순득' 재조명/최성환	9
다산 제자 이강희의 이용후생학/안대회	22
유암총서 국역문 일러두기	63
■ 제2부 유암총서 국역문(역자 : 김정섭, 김형만)	
표해시말	69
운곡선설	105
거설답객난	135
제거설	159
■ 제3부 유암총서 원문	
漂梅始末	3
雲谷船說	45
車說答客難	75
諸車說	94

